



1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국-북한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김치우가 환호하고 있다. 그 뒤를 박주영이 달리며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치우 천금의 결승골…한국 조 선두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北 1-0 제압…16년 5연속 무승부 종지부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이 보인다’
한국이 열네 번째 ‘코리안 더비’에서 지속한
북한전 ‘무승 징크스’를 끊어내며 월드컵 본선
진출의 8부 능선을 넘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2010 남아프리
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B조 5차
전 홈경기에서 후반 42분에 테진 ‘원발 달인’ 김
치우의 프리킥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
뒀다.

승점 3을 보탠 한국은 월드컵 최종예선 B조
에서 승점을 11점(3승2무)으로 늘려 북한(3승
1무2패·승점 10)을 끌어내리고 조 선두로 올라
섰다. 한국은 앞으로 세 경기가 남아있지만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
지를 확보했다.

또 지난 1993년 미국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3-0 승리 이후 16년 동안 이어왔던 북한 상대 5
경기 연속 무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북한만
만나면 승부를 가지기 못했던 악연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것이다.

허정무 감독은 지난달 28일 이라크와 평가전
에서 선발로 기용했던 이근호-박주영 릴비를

투톱으로 세우고 좌우 날개에 ‘캡틴’ 박지성과
이정용을 배치한 4-4-2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
다.

김정훈 감독이 지휘하는 북한도 원톱 스트라
이커로 활약하던 ‘인민 루니’ 정대세와 돌파력이
좋은 흥영조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3-5-2 전술
로 맞불을 냈다.

북한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한국 아크 정면까
지 치고 들어온 뒤 흥영조가 원발 종거리 슈팅
으로 포문을 열었다. 골키퍼 이운재가 빨랫줄 같
은 궤적의 공을 쳐내 아찔한 순간을 모면했다.

위기를 넘긴 한국이 기성용과 조원희의 중원
조율 속에 공세의 수위를 높여갔다.

전반 7분 이근호가 오른쪽 미드필드 지역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뛰웠으나 미쳐 자리를 잡지
못한 박주영의 헤ディング이 골문 앞에 힘없이 떨어졌다.

1분 뒤 박지성이 왼쪽 페널티지역 외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지만 전답 키커인 기성용이 강
하게 찬 공은 크로스바를 훨신 넘어갔다.

한국은 볼 접유율을 높여가며 북한의 문전을
위협했지만 굳게 닫힌 북한의 골문은 쉽게 열리
지 않았다.

북한은 한국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수비수 5

명을 일렬로 세우는 5-4-1 전형으로 수비벽을
더욱 단단하게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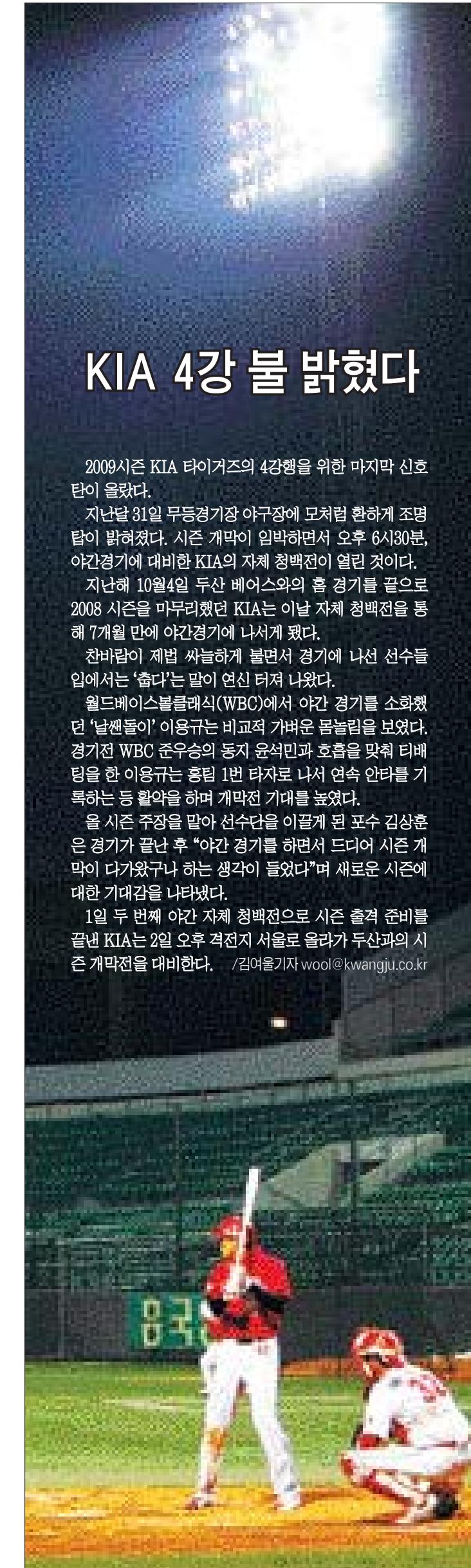
전반을 득점 없이 넘긴 한국은 세계선수권대
회에서 우승 페가를 이룬 ‘피겨퀸’ 김연아가 하
프타임에 나와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는 금빛 메
시지를 전했지만 후반 들어서도 답답한 골 결정
력은 여전했다.

고집적인 문전 처리 미숙에 애를 태우던 허정
무 감독의 기습을 시원하게 풀어준 해결사는 후
반 33분 이근호 대신 투입된 ‘원발 마술사’ 김치
우였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왼쪽 활로를 뚫은 김치우
는 후반 42분 오른쪽 페널티지역 외곽에서 북한
의 파울로 프리킥을 얻어내자 기성용 대신 키
커로 나섰다.

김치우는 한 번 숨을 고른 뒤 원발로 반대쪽
골대 모서리를 보고 힘껏 감아쳤고 공은 왼쪽 골
대 모서리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골키퍼 리명국은 수비수들에 가려 공의 방향
을 예측하고도 손을 쓰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신고했던
김치우의 기분 좋은 두 경기 연속 득점 행진이었
다. /연합뉴스



오는 4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KIA 타이거즈는 지난달 31일
과 1일 아간경기로 자체 청백전을 갖고 올시즌 4강 진출을 향한
전력 총점검에 나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존 첫날부터 맞대결 여제

〈신지애〉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크라프트 나비스코 웹피언십에서 당당한 웹피언 대접을 받았다.

대회조직위원회는 2일(이하 한국시간)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대회 1,2라운드에 신지애와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같은 조에 편성해 최대의 흥행카드로 내세웠다.

지난 해 세계 각지를 돌며 한국여자골프의 실력을 과시했던 신지애지만 LPGA 투어에서는 신인이다. 하지만 대회조직위가 신인에 불과한 신인 애를 여제 오초아와 동반플레이를 하도록 한 것은 이해적인 조편성이며 신지애의 실력을 인정한 것이다.

LPGA ‘나비스코챔피언십’ 오늘 개막

올 첫 메이저 1·2라운드 동반 플레이

신지애는 LPGA 멤버가 아니었던 작년에 3승을 거
렸고 올해에는 HSBC 위민스 웹피언스 우승을 포함
해 상금 랭킹 1위, 세계 랭킹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
지애와 오초아는 1라운드를 3일 오전 0시49분 10번홀
에서, 2라운드를 4일 오전 4시 1번홀에서 출발한다.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일본여자골프
스타 미야자토 아이와 3일 오전 0시1분 10번홀에서 1
라운드를 시작해 이를 동안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신지애는 2008년 이 대회에서 공동 31
위, 2007년에는 공동 15위에 올랐다. 세 번
째 이 대회에 출전하는 신지애는 이전과
는 확실히 달라졌다.

‘조크라인’이라는 별명처럼 곧게
뻗어나가는 드라이버샷을 날리는 신지
애는 개미하리처럼 좁은 페어웨이와 깊은 러프
로 무장한 미션힐스 골프장의 매력에 빠져 있다.

SBS골프채널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크라프트 나비스코 웹피언십을
생중계 한다. 3일부터 5일까지는 오전 6시, 마지막 라
운드가 펼쳐지는 6일에는 오전 4시에 중계된다.



〈오초아〉